

“먹고살기 힘들다” 한파보다 더 차가운 하소연

지역 국회의원들 설 민심 들어보니...

“민주당 환골탈태하라” 쓴소리도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동안 지역 민심을 살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한파보다 더 차가운 지역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지역 민들의 하소연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냉혹한 비판과 당내 쇄신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고, 귀향활동이 마치 ‘사죄 활동’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

서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변함없는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했다.

장병완(광주 남구) 민주당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11일 설 민심과 관련, 민주당의 환골탈태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현안 문제의 차질없는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내달 말 또는 4월 초 열릴 예정인 차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는 한심한 야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쓴소리도 있었다”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확고한 해신지와 지도력을 갖춘 대표와 지도부를 세우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이번 설 연휴기간 지역민들로부터 대선 패배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광주 송정역 일일명예역장을 시작으로 광산구 파출소 방문한데 이어 경로당과 재래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들었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이 민생 문제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다”면서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다운 개혁을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중심의 이기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민 중심의 대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새 정부에서도 호남 소외가 반복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그렇게 찍어줬는데,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이 많았고, 박 당선인의 최근 ‘깜깜이 인사’를 지켜보며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담양·함평·장성·영광)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꾸지람과 쇄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새 정부에 대해서는 호남의 소외와 차별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전대 모바일투표 폐지” 48%

민주당 설문조사 결과

“중도 색채 강화” 45.9%

민주당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바일 투표에 대해 국회의원, 당무위원,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서는 리더십 및 전략 부재가 우선 순위로 꼽혔으며 당 정체성과 관련, 중도적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워크숍 현장에서 실시한 ‘당 개혁과 전당대회를 위한 설문조사’ (123명 응답) 결과, 모바일 투표 존폐 문제와 관련, ‘모바일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서 모두 도입하되, 비율을 최소화’는 23.0%이었고, ‘당 지도부 선거에서는 폐기하고 공직선거에서는 유지’ 13.9% 등의 순이었다.

‘여론조사로 대체’와 ‘완전 폐기’를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8.3%)가 모바일투표 폐지를 주장한 셈이다.

구체적인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대의원 50%+권리당원 30%+여론조사 20%’(39.7%)가 1순위로 꼽혔

고, 다음으로 ‘대의원 50%+권리당원 20%+일반국민 모바일 투표 30%’(18.2%)가 많은 지지를 얻었다.

차기 지도부 임기와 관련, ‘2년 임기 완전 보장’이 37.5%로 가장 많았고,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1월까지’(30.0%), ‘2014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1년6개월’(29.2%)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상향식 선출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62.9%)이 현행 유지 입장(34.5%)을 크게 웃돌았다.

당 정체성과 관련, ‘중도적 색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5.9%로 절반에 가까웠다. ‘현 이념 및 노선 유지 주장’은 29.5%였고, ‘진보적 색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13.1%에 불과했다.

대선패배 요인으로서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선거전략 전락과 운용의 실책’이 63.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당 조직기반의 이완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견인 실패’ (11.5%),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후보 단일화 효과 극대화 실패’라는 응답은 5.2% 수준이었고, 그 외에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핵심정책 공약의 부재’(4.2%), ‘친노·비노 등 당내 계파 간 불협화음’(2.1%) 등의 응답도 나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동북부 눈폭풍 11명 사망

미국 코네티컷주 히트포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완전히 뒤덮었던 엄청난 눈이 10일(현지시간) 조금씩 녹으면서 차량의 형체가 드러나고 있다.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어지는 미국 동북부의 9개 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최대 1m 이상 내리면서 최소 11명이 사망했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눈 피해가 특히 컸던 코네티컷주에 대해 10일 연방 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히트포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완전히 뒤덮었던 엄청난 눈이 10일(현지시간) 조금씩 녹으면서 차량의 형체가 드러나고 있다.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어지는 미국 동북부의 9개 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최대 1m 이상 내리면서 최소 11명이 사망했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눈 피해가 특히 컸던 코네티컷주에 대해 10일 연방 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분권형 개헌추진 의원 모임’ 내주 가동

19일 첫 회에서 활동방향 논의

정치권 내 개헌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 최대 개헌모임인 ‘분권형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내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 모임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 37명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모임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모임은 특히 ‘2월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개헌 추진 주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여야 의원 전원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도 재차 발송했다. 현재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는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우 정의화 정갑윤 정병국 김경훈 이근현 주호영 권성동 김영우 김용태 안희대 신성범 조해진(이상 14명), 민주당통합당 이미경 김성근 이낙연 원혜영 강기정 강창일 박지원 유은근 유인태 설훈 전병헌 문병호 유성열 이복희 김광진 김윤덕 부좌현 유대운 임수경 이원욱 정호준 최민희 황주홍(이상 23명) 의원이다.

여야 연락책은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트위터 글을 통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논의를 끝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동료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도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구체적 개헌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기정 “건강검진 대상 만 20~40세 女 추가”

민주당통합 강기정(광주 북갑)의원은 보건복지부본법상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만20~40세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 피부양자 및 세대원에 대해선 만40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여성의 경우 20~39세 연령대는 여성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조기검진을 통해 여성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성곤,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민주당통합 김성곤(여수 갑) 의원이 8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시민네트워크연합회 등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한해간 모범적 의정 활동을 보인 여야 국회의원 13명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상자로 선정된 의원들은 민주당 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김동홍·김장실·김태환·김희선·



원유철·이근현·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김태환·윤관석·전병헌·정호준 의원,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각 NGO 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을 기초로 사전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식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배기운 “국가지정 기관서 연비 측정해야”

민주당통합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은 10일 자동차 연비가 과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서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연비에 대한 잘못된 표기나 광고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춘진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 발의

민주당통합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활용토록 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농어촌과 도심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는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합합을 추진해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5000여 개가 통합 또는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한교통,광고효과최고!

임대층 1,2,5층 각 100평, 52평
관장업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빌딩상기전문주거)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시군정형) 광주 시군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마크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편과 엄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순남서진내권)